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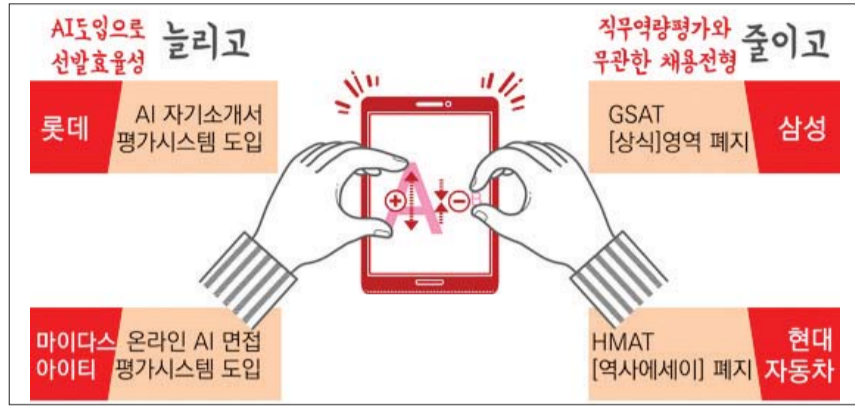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이 바꾼 '기업 채용 풍속도'

AI 면접관이 자소서 표절 잡고 어휘·맥박 분석까지

삼성 '상식'·현대차 '역사' 폐지
직무 역량 평가에 주력키로

(2018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 변화)

/자료=인크루트



기업의 인재 선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롯데와 마이다스아이티는 올해 공채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AI(인공지능)를 첫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은 인적성검사 전형인 GSAT에서 '상식' 영역을 폐지했다. 현대자동차 인적성검사 과목 중 '역사에세이'가 없어진다.

인크루트가 7일 밝힌 2018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역량 검증 심화'와 '4차 산업혁명' 등 2가지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 트렌드를 이끌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현실화된다. 롯데그룹은 오는 20일~29일 진행되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AI(인공지능) 자기소개서 평가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

하면, AI가 서류 상 텍스트를 분석해 인재상 부합도, 직무적합도, 표절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는 서류전형을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고 지원자의 본질 과역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는 새 채용 시스템을 백화점, 마트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이다스아이티도 지난 5일~21일까

지 진행하는 신입사원 열린채용에서 AI 전형을 도입했다. 'MIDAS inAIR'라는 이름이 붙여진 온라인 AI 면접에는 모든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어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의 채용 철학이 반영됐다. PC와 웹캠, 마이크가 있는 지원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용전형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다. 한편 마이다스아이티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면접 솔루션 '인터뷰(interview)'는 지원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롯데의 AI 서류전형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 질문을 받은 지원자의 표정과 맥박, 목소리 톤 및 속도, 어휘 사용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오는 12일 예정인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적성검사 전형인 GSAT의 '상식'영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식 영역은 역사, 사회, 경영, 문화, 시사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돼 구직자들의 부담이 컸다. 일각에서는 "상식 영역이 GSAT를 '삼성고사화'하는데 일조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삼성은 직무와 관련된 지식 평가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여 삼성의 '직무역량 검증 심화'라는 채용시장 트렌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 앞서 지난 5일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채용설명회'에서 인적성검사(HMAT) 과목 중 하나인 '역사에세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제국과 세계화', '르네상스의 의의와

영향', '쇄국정책과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시의적인 테마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시대와 기업의 고민을 물어왔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색적인 채용 전형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무관한 학원 강습 등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폐지를 결정했다. HMAT과 실무면접, 임원면접은 그대로 진행한다.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에서도 변화가 있다. 기아차는 지난 5일부터 '2018 인턴 K' 모집을 통해 지원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채용에 나섰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채용 전형형 인턴'이다. 또 최종 정규 신입사원으로 선발되는 지원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졸업자와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는 오는 9월 입사,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내년 1월 입사로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턴십 기간 역시 기존 7주에서 5주로 단축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단신 |

고려대 교수들, 장학생 56명에게 장학금 총 1억3329만원 지원

고려대학교는 교수들로 구성된 장학재단 석림회가 8일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석림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56명의 학생에게 약 1억 3329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1970년 고려대 교수들이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석림회는 현재 918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있는 학내 장학재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연간 평균 10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1인당 200~5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성균관대, 청년 창업공간 개소

성균관대학교가 서울시와 함께 만든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인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Kinggo Start-Up Space)'가 문을 열었다.



35길 38에 위치한 건물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을 지원했다.

한국외대 국제협력센터, 대한상의회 8일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협력센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태평양동맹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협력전략센터 소장, 허태안 외교부 중남미국장,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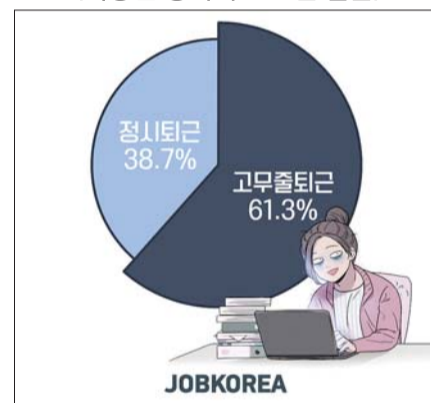
직장인 10명 중 6명 "정시퇴근은 그림의 떡"

퇴근 시간 보다 평균 73분 더 근무
직급 높을수록 초과 근무시간 길어
85% 귀가 후에도 업무 압박 느껴

직장인 5명 중 3명은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평균 퇴근시간 보다 73분 더 근무하다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대다수(85.6%)는 퇴근 후에도 업무 강박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7일 밝힌 최근 직장인 958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강박'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하는 직장인은 38.7%에 불과했다. 61.3%는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머물다가 퇴근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직급이 높을수록 정시퇴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퇴근을 못한다는 직장인들은 평균 73분(주관식 기재)을 더 사무실에 머물렀다. 초과 근무시간은 직급별로 ▲차·부장급이 106분으로 가장 길었고▲과장급 89분

<직장인 정시퇴근 관련 설문>



직장인 958명 대상. /자료=잡코리아

▲대리급 75분▲사원급 56분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을 늦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81분)이 여성(58분)보다 23분 가량 더 머물다 퇴근했다.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일이 시간 안에 끝나지 못할 정도로 많아'가 5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칼퇴근은 어쩔지 눈치가 보여서'

(50.4%), '상사가 퇴근한 후에 퇴근하려고'(34.8%), '업무시간보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 업무 집중력이 높아지는 편이라서'(14.0%), '복잡한 퇴근 시간을 피하려고'(11.2%), '마땅히 집에 가서 할 일도 없어서'(3.7%), '자격증 공부, 직무 교육 등 공부하느라'(3.1%) 등이었다.

응답자 중 85.6%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 업무 부담 등 업무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다. 퇴근 후 업무 강박 빈도는 '어쩌다 한 번씩'(39.2%), '자주'(32.7%), '늘'(13.7%) 등이었다.

업무가 끝났음에도 업무 부담을 갖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절반을 웃도는 직장인들이 '내 일, 자리에 대한 책임감'(56.8%), '맡은 업무가 많아서'(51.1%)라는 이유를 댔다. 이밖에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감', '일을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해서', '회사,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8일
음력 : 1월 21일

수도권 날씨
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 동두천 2/8, 가평 0/6, 파주 1/7, 서울 2/7, 양평 2/5, 인천 1/6, 수원 2/6, 용인 2/6, 평택 2/5

백령도 0/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18기 입학식이 지난 6일 서울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18기 입학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18기 입학식이 지난 6일 개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 정부, 언론

인, 바이오관려자 및 금융투자업 관계자 41명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6개월간 매주 화요일 강의와 함께 국내외 산업시찰과 동문초청 특강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차별화된 커리큘럼, 각 계 각층의 원우 구성, 선·후배 기수 간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서울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 /신정원 기자 sjw1991@

대학 원천기술 사업화에 5년 동안 625억원 지원

대학이 개발한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브릿지(BRIDGE)사업이 '브릿지 플러스사업'으로 개편 올해부터 5년간 18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을 활성화하고 대학 재원 구조 다변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브릿지 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올해 브릿지플러스 사업은 18개교 내의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평균 7억원 등 총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 간 625억 원을 투입한다. /한용수 기자